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 주 영*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부모로부터의 폭력,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과 분노 감정을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남녀학생 간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청소년패널 초등5차 자료(중학교 2학년)를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은 청소년의 분노에, 부모 간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감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폭력과 공격성 간 경로에서 분노변인이, 부모 간 갈등과 공격성 경로에서는 우울변인이 각각 완전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학생 간 차이는 부모폭력이 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경로에서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인식은 청소년인 자녀의 우울, 분노, 공격성을 증폭시키므로,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단정 짓지 말고, 학부모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주요 인사의 기부강연, 봉사단체와의 실질적인 연계, 전문 상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주제어 : 공격성, 우울, 분노, SEM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deu1487@hanmail.net

I. 서 론

2013년 7월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4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생 중 9만 4000여 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하였고, 4만 7000여 명은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 건수 결과 언어폭력이 전체 34%를 차지했고, 집단 따돌림 16.6%, 폭행·감금 11.7%, 금품갈취 10%, 스토킹 9.2%, 사이버 괴롭힘 9.1% 등 순으로 나타났다(경남도민일보, 2013.08.07). 이는 지난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강제적 심부름과 금품갈취 등 쉽게 드러나는 유형의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 등 조직화하고 은밀해지기 쉬운 유형의 폭력이 두드러졌고, 특히 여학생들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은 개인특성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공격성의 개념은 공격성이 발생하는 원인, 이유, 지속상태, 유형 등이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몇몇 대표적인 학자의 공격성 개념을 살펴보면, Buss(1961)는 대인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주는 행동으로서 물건이나 사람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심리적인 해를 주는 행동을 공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Eron(1980) 역시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Maccoby와 Jacklin(1974)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성을 포함하여 공격성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공격성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물리적·언어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동뿐 아니라 분노를 촉발하는 정서 상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Bushman & Huesmann, 2001; Orpinas & Frankowski, 2001).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장과 전환의 시기로서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경험하는 혼란과 갈등의 시기이다(장휘숙,

2003).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쉽다. 초등학교의 폭력의 경우에는 사소한 싸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되는 반면, 중학생부터는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따돌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도 중학생 시기이다(조학래, 2002). 또한 사춘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학생이 비교적 자제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덜 길러져서 그만큼 공격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때(홍명숙, 어주경, 2013), 청소년의 공격성이 다름에 있어 초등학교생이나 고등학교생에 비해 중학생의 공격성을 보다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내적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기지, 심리적 특성, 성향 등이 있고,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친구의 지지, 또래 영향력, 대중매체, 사회의 구조적 요인 등이 언급되고 있다(김정원, 2007).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는 부모의 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모델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인 처벌이 아동의 공격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강압적인 처벌은 자녀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약한 존재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으로 이어진다(김광일, 고복자, 1987).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처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ckenrode, Laird & Doris, 1993). 즉 부모 간 갈등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물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에서 가족 간 갈등상황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 직후부터 매일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원인을 찾아보고, 공격성 완화 방안을 모색하여 고통 받는 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중에서도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 그리고 부모 간 갈등상황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분노와 우울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저하게 높은 공격성이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이아영, 2011; 정익중, 이지언, 2012). 그리고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폭력, 폭언 등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모습과 양육태도를 경험한 성인은 공격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일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 즉 공격성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하영희, 2004). 즉,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이 분노표출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견해이다. 정윤성(2007)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방식에 따른 분노표현 차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들과 딸의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우울 및 분노를 거쳐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와 변인 간 관련성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받는 스트레스, 폭력, 부모 간 갈등의 변인이 청소년의 우울, 분노를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 성별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우울, 분노, 공격성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어 불행한 아동기를 거쳐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늘면서 부모와 관계 인식이 다소 감소하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심리, 가치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중에서 제재·거부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연관이 높았다. 임희수(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방식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어머니가 지시·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감정발산이

나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할수록 자녀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낮아졌다(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이처럼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준다(이광자, 김순옥, 2005).

사회화습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행동에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격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는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학습하게 된다(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에 대한 정서적 무감각과 습관화를 야기시켜 공격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보상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Warlick, 197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되고,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장혜림, 정익중, 201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 중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 간 갈등이다.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 비행/반사회적 행동, 불복종 및 문제행동, 우울, 불안/위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Cumming, 1994; Johnston, O'Leary, 1987; Patterson, 1986). 이러한 우울의 감정은 개인 내의 불유쾌한 감정이나 자극을 야기함으로써 공격성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부모의 갈등이 심할수록 아동 및 청소년은 외현적·내면적 문제, 우울, 정서적·심리적 장애,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고, 내면적 문제보다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와 관련성이 높았다(Fincham, Grych & Osborne, 1994; Katz & Gottman, 1993). 그리고 청소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 간 갈등상황은 청소년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축적하게 하고,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도현심, 2001; 이지희, 문혁준, 2007).

부모 간 갈등이 심해 나타나는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은 그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자 정서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를 자주 목격할수록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동기, 최윤정, 2012). 즉, 부모가 서로의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동 및 청소년은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역시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Grych & Fincham, 1990).

이상과 같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청소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이 점점 깊어진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강신덕, 1997). 또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인 우울감과 분노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하영희, 2004).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분노가 공격행동 및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격적 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Feinder & Ecton, 1986).

2. 주요 변인의 성별 차이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나타난다는 견해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인 공격성향(overt aggression)을 더 드러내고, 여아는 놀이집단에서의 제외, 왕따 등의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공격성향(relational aggression)을 나타낸다는 것이다(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이러한 여아들의 관계적 공격성향은 사회적·정서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신체적인 공격성보다 보다 세밀한 주의관찰이 필요하다.

공격성의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생물학적인 차이인지, 사회학습에 인한 것인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차이는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강진령(2000)에 의하면, 여아의 집단괴롭힘은 남학생과 경향성이 다르며 그 원인은 바로 공격성 유형의 남녀 성별차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격성에 관련된 논문 119편을 메타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우세함을 밝히고 있다(서미정, 2011). 이는 남아의 공격 행동이 여아보다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남아는 여아보다 확실히 외현적 공격행동을 보이기 쉽다고 볼 수 있다(전주람, 김순옥, 2012). Patterson(1986)은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 간 관계에 대해 강압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부모가 신체적인 처벌, 비밀관적인 훈육과 강화, 부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남자 아이의 외현적인 공격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이다. Maccoby와 Jacklin(1975) 역시 공격성 성차에 관한 94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관계없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계급, 계층, 문화를 초월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집단의 반응외현적, 선제외현적, 선제관계적 공격 수준이 여자 집단보다 높았다. 그리고 남자 집단의 전반적 공격형과 극단적 선제공격형이 우울, 자극추구성향에서 높았고,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 공격형과 반응공격형이 우울, 자극추구성향에서 역시 높았다(신현숙, 2013). 즉, 남자의 공격성 수준이 여자보다 높을 뿐 아니라 남자는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 등 외현적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여자는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는 관계적 공격의 경험을 남자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부갈등으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 중 학령기 초기나 중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학령기 말과 사춘기부터는 여아가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다고 한다(Werner, 1989). 부부간 폭력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우울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간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갈등의 정도가 크면, 청소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 Gerad, Krishnakumar and Buehler(2006)에 따르면, 청소년은 고통 받는 가족 중 같은 성의 부모 편을 드는데 주로 여아가 어머니의 편을 들면서 이성부모와의 잠재적인 유대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의 우울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학생의 우울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고,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최인재, 2007). 그리고 이은희, 최태산과 서미정(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 등이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로 계수값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 예방 프로그램 계획 시 이러한 남녀 성차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1.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인식이 청소년의 우울, 분노 그리고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우울, 분노의 감정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인식이 우울과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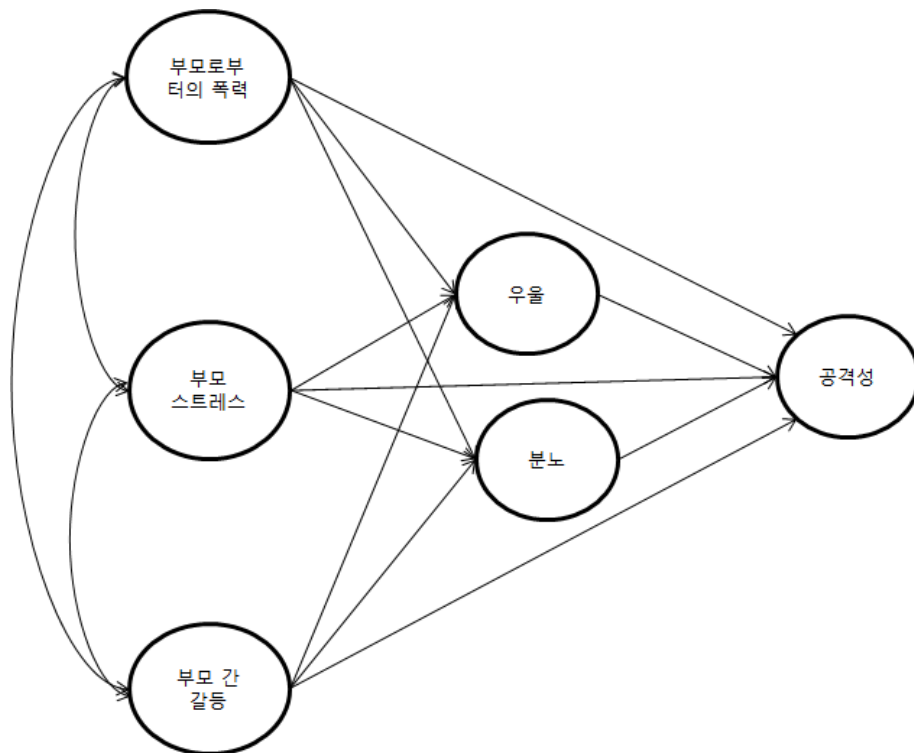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부정적인 관계인식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연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집단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초등5차 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지난 2004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5차년도 조사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중2 재학 중이라고 밝힌 총 2431명(남학생 1295명, 여학생 1136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1은 연구대상 중2 재학생의 부모 위주 특성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문항	여부	남학생		여학생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부모의 심한 부부싸움	없었다	1190	91.9	955	84.1
	있었다	105	8.1	181	15.9
아버지의 어머니폭행	없었다	1262	97.5	1091	96.0
	있었다	33	2.5	45	4.0
아버지로부터의 심한구타	없었다	1247	96.3	1090	96.0
	있었다	48	3.7	46	4.0
어머니로부터의 심한구타	없었다	1270	98.1	1109	97.6
	있었다	25	1.9	27	2.4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642	50.3	563	51.4
	대졸	544	43.9	472	43.2
	대학원졸	72	5.8	60	5.5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850	69.3	782	71.2
	대졸	367	28.4	303	26.7
	대학원졸	10	0.8	13	1.2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로부터의 폭력(공격적 양육태도),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부모 간 갈등,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의 6개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문항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부모로부터의 폭력(공격적 양육태도)의 cronbach α 값은 .871,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의 cronbach α 값은 .883, 부모 간 갈등의 cronbach α 값은 .809, 청소년의 우울의 cronbach α 값은 .890, 청소년의 분노의 cronbach α 값은 .871, 청소년의 공격성의 cronbach α 값은 .880, 으로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 값을 보이고 있다.

표 2

문항과 신뢰도

변수	문항	신뢰도
부모로부터의 폭력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87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883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 간 갈등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809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청소년의 우울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890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청소년의 분노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871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공격성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880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3. 분석방법

첫째,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인식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20.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또는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였다. 2단계 분석법은 측정모형을 통하여 단일 차원성, 신뢰성, 타당성을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측정모형의 재설정을 한 뒤 이 결과를 경로분석에 도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의 장점 중 하나는 구조모형이 적합한지 검토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홍세희, 2011).

둘째, 본 연구모형의 성별 비교연구를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multi-group SEM)을 활용하였다. 집단 간 비교는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고찰하는 분석기법으로 구조모형에서 한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한다(김주환 외, 2009).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측정 동일성 제약과 집단 간 등가제약의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 동일성 제약은 연구모형에서 각 집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집단 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별 적합기준은 RMSEA .06 이하(Hu & Bentler, 1999)를, TLI는 .9 이상(Tucker & Lewis, 1973)을, CFI 역시 .9이상(Bentler, 1990)을 기준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치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다음의 표 3은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인식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6개의 잠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값을 제시한 것이다. 이 통계량은 자료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투입할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준다.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수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모로 부터의 폭력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1.63	.941	1.560	1.95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1.60	.946	1.616	2.027
부모로 부터의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87	1.132	.003	-.741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62	1.098	.217	-.65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59	1.138	.300	-.676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6	1.124	.404	-.593
부모 간 갈등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1.91	1.073	.985	.107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1.58	.924	1.647	2.174
청소년의 우울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2.41	1.157	.397	-.781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2.36	1.160	.473	-.699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2.32	1.159	.521	-.629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91	1.035	.986	.300

변수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청소년의 분노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풍동이 생길 때가 있다.	2.67	1.261	.203	-1.03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2.13	1.091	.796	-.069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2.02	1.063	.945	.302
청소년의 공격성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3.25	1.112	-.377	-.655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54	1.028	-.654	.036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1.90	.861	.861	.698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변수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연속변수이어야 한다. 이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지표가 0값을 가질 때 정확하게 정상분포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분포는 불가능하다. Curran, West and Finch(1996)는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으면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어 최대 우도법을 통한 추정에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인 표 3의 왜도와 첨도값은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 추정결과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인식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에 따라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 추정을 통해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검증하였다.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870.179$, $df=119$, $p=.000$, TLI=.959, CFI=.968 그리고 RMSEA=.051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에 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결과표를 보면, p 값도 모두 .001 이하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모든 관찰변수가 본래 의도한 잠재변수에 잘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측정변수	부모로부터 의 폭력	부모 스트레스	부모 간 갈등	이동 우울	이동 분노	이동 공격성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	1.000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음.	.940*** (.018)					
부모로부터의 성적 스트레스		1.000				
부모님과 의견충돌 스트레스		1.07*** (.021)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		1.00*** (.020)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		.809*** (.023)				
부모 간 욕설 목격			1.000			
부모 간 폭력 목격			1.02*** (.025)			
이유 없는 불안감				1.000		
이유 없는 외로움				1.17*** (.025)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함.				1.17*** (.025)		
이유 없는 자살 충동				.822*** (.023)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					1.000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					1.05*** (.028)	
화약고 같은 심경					.984*** (.032)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음.						1.000
보복성 폭력 가능						.677*** (.032)
잡은 싸움						.964*** (.04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2) 구조모형의 추정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109.442$, $df=120$, $p=.000$, TLI=.948, CFI=.958, RMSEA=.058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용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수 각각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 분석결과

경로			b(S.E.)	β
청소년의 우울	←	부모로부터의 폭력	.009 (.059)	.008
청소년의 분노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284*** (.022)	.318
청소년의 분노	←	부모 간 갈등	.054 (.058)	.052
청소년의 분노	←	부모로부터의 폭력	.156** (.057)	.160
청소년의 우울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307*** (.023)	.323
청소년의 우울	←	부모 간 갈등	.152* (.060)	.139
청소년의 공격성	←	청소년의 우울	.030* (.015)	.048
청소년의 공격성	←	청소년의 분노	.634*** (.029)	.968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0.65***(.017)	.109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로부터의 폭력	.001 (.042)	.001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 간 갈등	0.49 (.043)	.073
부모로부터의 폭력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261*** (.019)	.326
부모 간 갈등	↔	부모로부터의 폭력	.594*** (.021)	.849
부모 간 갈등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165*** (.018)	.216

*** $p<.001$, ** $p<.01$, * $p<.05$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를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β)는 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 값을 통해 잠재변수 간 경로의 상대적 효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폭력과 부모 간 갈등 요인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우울, 분노 요인이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부모로부터의 폭력과 부모 간의 갈등 요인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느끼는 우울, 분노의 감정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폭력 요인이 청소년의 분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우울 변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간 갈등 요인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분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스트레스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과 분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로부터 받는 폭력과 청소년의 공격성 경로에서 청소년의 분노가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모 간 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 경로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변인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공격성 간 경로에서는 우울과 분노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부모로부터의 폭력,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부모 간 갈등의 독립변수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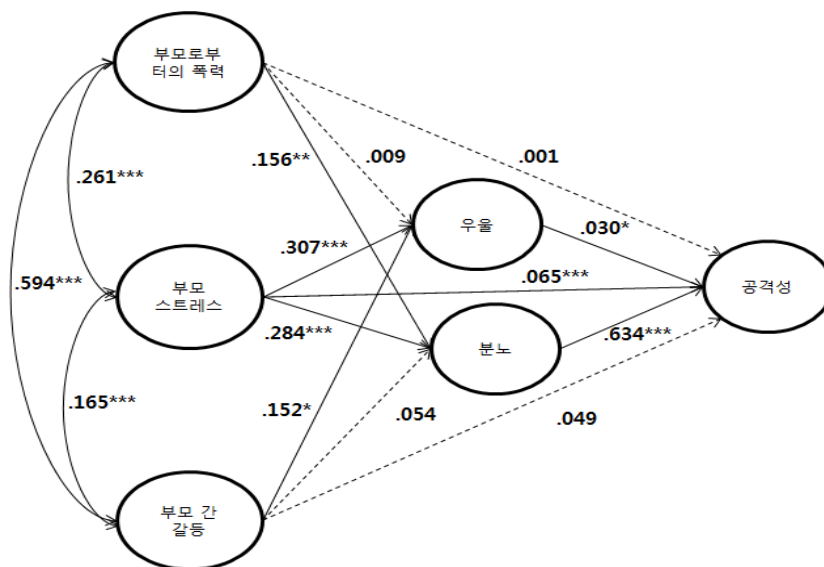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3. 다집단 분석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인식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모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계수 차이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남학생 1295명, 여학생 1136명이다. 먼저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카이 제곱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여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본다. 측정동일성 제약은 연구모형에서 각 집단 간 반응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며, 집단 간 등가 제약은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Byrne, 2001). 다음으로 집단 간 차이가 적은 계수부터 동일화 제약을 가해 계수차이검증을 통하여 구조 동일성 모형을 찾아 두 집단 간 계수값을 비교하였다(홍세희, 2011).

기저모형의 $\chi^2=1306.577$, $df=240$ 이고, 측정동일성 모형의 $\chi^2=1326.665$, $df=252$ 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카이제곱값 차이는 20.088로 자유도 차이 12에서 46.08을 넘지 않아 두 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의 적합도는 $TLI=.955$, $CFI=.945$, $RMSEA=.042$ 로 동일한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회귀계수 해석이 가능하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계수차이 결과 중 가장 작은 값을 하나씩 동일화 제약하는 방식으로 구조동일성 모형을 형성하였고, 모형비교를 한 결과 구조동일성 모형(1)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모형비교 결과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판정
기저모형	1306.577	240	.000	.955	.943	.043	채택
측정동일성모형	1326.665	252	.000	.955	.945	.042	채택
구조동일성모형(1)	1326.665	253	.000	.955	.945	.042	채택
구조동일성모형(2)	1700.618	254	.000	.939	.927	.048	기각

주) 구조동일성 모형(1): 부모 간 갈등 → 청소년의 공격성 경로 동일화 제약, 구조동일성 모형

(2): 구조동일성 모형(1)에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 부모 간 갈등 경로 동일화 제약

선정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인식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남녀 성별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최종 구조모형 모수추정치 비교

경로		남학생		여학생	
		b(S.E.)	β	b(S.E.)	β
청소년의 우울	← 부모로부터의 폭력	.101 (.070)	.131	.009 (.093)	.008
청소년의 분노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285*** (.028)	.367	.265*** (.034)	.286
청소년의 분노	← 부모 간 갈등	.042 (.079)	.050	.086 (.097)	.073
청소년의 분노	← 부모로부터의 폭력	.247** (.081)	.284	.149 (.097)	.130
청소년의 우울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208*** (.025)	.301	.364*** (.033)	.380
청소년의 우울	← 부모 간 갈등	.079 (.069)	.103	.142 (.093)	.117
청소년의 공격성	← 청소년의 우울	.043 (.023)	.065	.001 (.024)	.002
청소년의 공격성	← 청소년의 분노	.549*** (.030)	.945	.550*** (.069)	.826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045* (.020)	.100	.069* (.026)	.112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로부터의 폭력	.025 (.044)	.050	.015 (.047)	.020
청소년의 공격성	← 부모 간 갈등	.049 (.041)	.099	.049 (.041)	.063
부모로부터의 폭력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891*** (.030)	.615	.279*** (.027)	.373
부모 간 갈등	↔ 부모로부터의 폭력	1.202*** (.041)	.915	.488*** (.026)	.829
부모 간 갈등	↔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888*** (.021)	.603	.179*** (.026)	.246

*** $p < .001$, ** $p < .01$, * $p < .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이 분노 요인을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우울 변인 간 경로,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분노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스트레스가 분노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부모 스트레스와 우울, 공격성 간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 그림 3과 그림 4는 두 집단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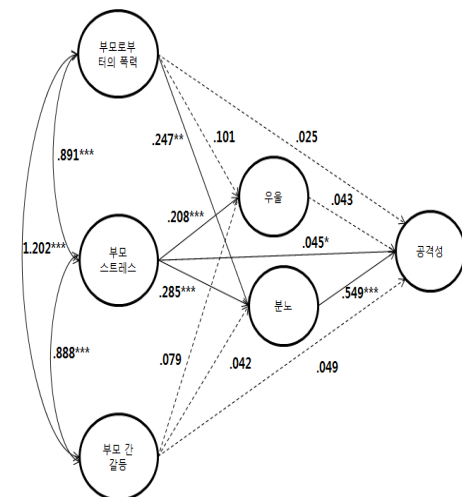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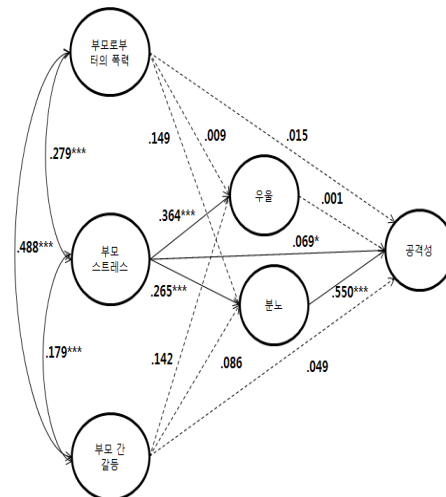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분석결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중에서 스트레스, 폭력, 부모 간 갈등으로 인한 인식이 청소년의 우울과 분노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폭력은 청소년의 분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우울과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과 분노가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은 청소년의 분노를 완전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인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하면 이는 자녀의 분노감을 증대시켜 공격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버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아지고(김정원, 2007), 부모가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으면 자녀의 공격성에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신현숙 외, 2012; 오채미, 공인숙, 2007; 이지희, 문혁준, 2007; 장혜림, 정익중,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제재와 체벌 위주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결국 공격성의 수준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신현숙 외, 201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과 열린 사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체제에서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학교에서의 경쟁구도에 지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평안과 휴식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받게 되면, 청소년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개인, 가정, 사회에 공격적 성향, 폭력적 성향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부모로부터 받는 각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불통, 의견충돌, 학업,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분노감을 증가시키고, 종국에는 청소년의 공격성 역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변인(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태도, 부부갈등 등)이 청소년 및 아동의 공격성,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동기, 최윤정, 2012; 김민정, 도현심, 2001; 신현숙 외, 2012; 오채미, 공인숙, 2007; 이지희, 문혁준, 2007; 장혜림,

정익중, 2013)와 일치하는 것이다. 행동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 부모로부터 지나친 제재와 간섭을 받는 청소년은 구조화된 지지를 받는 청소년에 비해 또래괴롭힘, 가해, 공격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하고, 청소년의 우울감을 증대시킨다(신현숙 외, 2012).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실, 좌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자녀는 위축되고 소외된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적대적인 반항, 비행, 저항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는 우울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이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우울과 관계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보경, 민병배, 2006; 안명희, 신희수, 2012)와도 일치한다.

셋째, 부모 간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분노와 공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 간 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경로에서 우울감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간 갈등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부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인식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이 높아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분노와 공격성 변인 간 계수값이 .634로 가장 높게 도출되어 청소년의 공격성과 분노의 감정이 매우 높은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폭력, 부모 간 갈등 변인과 청소년의 공격성 경로에서 남녀학생 간 집단 차이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경로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이 분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남학생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결과를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로계수값이 여학생보다 남학생 집단이 높게 도출되어,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부정적인 관계(특히 신체적인 폭력 및 폭언)가 남학생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우울, 분노, 공격성)에 더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격성의 수준이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여학생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길주현, 오경자, 2008).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격적 성향의 차이, 발현 양상의 차이, 영향을 받는 경로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성별 특성에 맞는 치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과 폭언을 받으면 분노의 감정이 커져 공격성이 증가하므로, 남자아이는 거칠고 강하게 키우

고 다루어야 한다는 통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인식은 청소년인 자녀의 우울, 분노, 공격성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자녀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성향과 심리상태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부모의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었던 아동 및 청소년이 자라 또다시 폭력적인 부모가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흐름을 사회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부모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인프라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무조건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통해 올바른 부모 되기와 자녀 양육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단정 짓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치료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교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상담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계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주요 인사의 기부 강연, 봉사단체와의 실질적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공격적 성향의 청소년들이 대개 가정과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사, 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구상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강진령 (2000). **집단괴롭힘**. 서울: 학지사.
- 경남도민일보 (2013.8.7). 학교폭력 예방 정규수업화...실질적 대안 될까.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652>에서 2013년 8월 7일 인출.
- 길주현, 오경자 (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 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 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 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광일, 고복자 (1987).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동기, 최윤정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249-268.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정원 (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2), 143-162.
- 신현숙 (2013).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2), 191-215.
- 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오채미, 공인숙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39-149.
- 이광자, 김순옥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 이아영 (2011). **초등학생의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지희, 문혁준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임희수 (2000).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장휘숙 (2003).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주람, 김순옥 (2012). 초등학생 고학년 남아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20.
- 정익중, 이지연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지지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9(1), 63-85.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 조학래 (2002). 중학생 집단따돌림 실태와 대응방안. **연세사회복지연구**, 8, 1-26.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홍명숙, 어주경 (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에,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 홍세희 (2011).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서울: S&M 리서치 그룹.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ushman, B. J., & Huesmann, L. R. (2001). Effects of televised violence on aggression. *Handbook of children and the media*, 223-254.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US: John Wiley & Sons Inc.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 Cummings, E. M.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Guilford.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Eckenrode, J., Laird, M., & Doris, D.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3-62.
- Eron, L. (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 Feindler, E. L., & Ecton, R. B. (1986). *Adolescent anger control: Cognitive-behavioral techniques*. Elmsford, New York: Pergamon Press.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erard, J. M.,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youth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7), 951-975.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son, P. L., & O'Leary, K. D. (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Katz, L.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40-950.
- Maccoby, E. E., & Jacklin, E.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rpinas, P., &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Patterson, G. R. (1986). The contribution of siblings to training for fighting: A microsocial analysi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 Yarrow (Eds.), *Developmental of antisocial behavior: Research, theory, and issues* (pp.235-261). New York: Academic Press.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4), 432.
- Shaffer, D. (2009).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USA: Cengage Learning, Inc.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Y: Harper & Row.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parent-child' negative interaction and adolescent' aggression: Focusing on sex differences

Jung, Jo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casual model between parent-child' negative interaction and adolescent' aggression as it is mediated by adolescent depression and ange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s they related to sex. The data from the 5th KYP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 from the parents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 levels of depression, anger and aggression. Violence on the part of the parents had a direct impact on adolescent levels of anger and conflict between the parents had a direct impact on depression. Second, the depression and anger variables completely mediated violence, conflicts and aggression. Third, in terms of sex differences us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male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ath between violence from the parents and adolescent anger.

Key Words : aggression, depression, anger, SEM

투고일 : 2014. 3. 10, 심사일 : 2014. 5. 9, 심사완료일 : 2014. 5. 15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